

생동감 넘치는 조직의 힘으로, 빈곤과 차별의 벽을 넘는다



부산 반 빈 곤 센 터 소 식 지

# 쇠고기를



73  
2025. 6.

서로배움터  
1강 빈곤과  
반빈곤운동

여는 시 : 궁지로 살아낼 것입니다. 우리는  
질어가는 계절의 변화 속에 단단해져 갈 우리의 연대를 바라며  
'잊혀지지 않을 권리'를 기꺼이 지키려는 사람들  
회원탐방 : 남보리 | 감정의 문화정치  
5.18을 기억하는 사람들

## 01 여는 시

긍지로 살아낼 것입니다, 우리는 | 신경현



## 02 여는 글

짙어가는 계절의 변화 속에  
단단해져 갈 우리의 연대를 바라며 | 김원석

## 03 표지이야기

서로배움터 1강 빈곤과 반빈곤운동 | 최고운

## 05 활동보고

'잊혀지지 않을 권리'를 기꺼이  
지키려는 사람들 | 임기현

## 09 회원탐방

남보리 | 편집팀

## 07 사진으로 보는

## 15 회원기고

감정의 문화정치 | 김남영

## 18 맛집탐방

5.18을 기억하는 사람들 | 김민수

- 표지 사진은 5월 30일, 서로배움터 2강에 참석한 참석자들의 모습입니다.
- 아래 사진은 5월 17일, 부산추모공원에서 있었던 <정현성 동지 11주기 추모제>에 참석한 분들의 모습입니다.

## 20 회계보고



긍지로 살아낼 것입니다, 우리는  
- 금속노조 한국옵티칼 박정혜 소현숙 동지의  
500일전 승리를 기원하며

### 해방글터 신경현

어떤 날은 그럭저럭 견딜만했고  
어떤 날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견딜만했던 날과 견디기 힘들었던 날 그 어디쯤,  
어떤 날은 더워서 팽팽 언 생수통을 부둥켜안았고  
어떤 날은 추워서 이불을 뒤집고 밤을 보냈습니다  
살고 싶은 날의 날줄과 씨줄의 지점을  
한 땀 한 땀 넓혀 뜨개질도 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또박 또박 일기도 쓰면서  
어떤 날은 딛을 수 있는 걸음을 세어보고  
어떤 날은 마음껏 딛고 싶은 거리를 그려봤습니다  
어떤 날은 그리움에 마음이 울렁였고  
어떤 날은 흐린 눈빛 숨기지 못했습니다  
불탄 공장 쫓겨난 노동자여서 우리는  
보잘 것 없는 이름이어서 우리는 쉽게 잊혀질거라지만,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새벽, 잠들지 않고 깨어나  
을밀대 지붕에 올라 임금감하 철회를 외쳤던  
평원고무공장 강주룡의 얼굴을  
울지 않고 죽지 않고 마침내 살아온 한진중공업 용접공 김진숙의 얼굴을  
서로의 눈빛에서 발견합니다  
아무 잘못 없이 쫓겨나고 죽었던 이름 없는 모든 이름들과  
끝내 긍지로 살아낼 것입니다  
우리는



## 짙어가는 계절의 변화 속에 단단해져 갈 우리의 연대를 바라며

계절이 짙어가고 내리는 햇살도 점점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였고, 노동절을 지나며 우리의 투쟁도 짙어가는 계절만큼이나 물러섬 없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모를 봄의 끝자락도 물러가고 따뜻함을 넘어 조금은 무거운 더위가 스미는 공기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거리로 나섰습니다.

올해의 노동절은 이전의 노동절 집회와는 사뭇 다른 음악과 다양한 의제의 연대발언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탄핵정국에서부터 이어진 새로운 운동의 형태이자 민중운동으로서 확장된 연대의 시작점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포함되지 못하고 전면으로 드러나지 못한 의제들도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서 두 번에 걸쳐 연재된 시국토론회의 요약 정리에서도 이 같은 토론내용이 실렸던 걸로 기억하기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현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운동의 가치를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언제의 누구라고 지목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너무나도 많이 흔들려 왔습니다. 분명 그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일 거라 믿었을 테지만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실수를 늘 해왔습니다.

시대의 변곡점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방심하고 한순간 경계의 눈을 거두고 감수성의 날을 예리하게 세우지 못한다면 하나를 주고 열을 앗아가는 간교한 정치꾼의 사탕발림에 속아 다시금 후퇴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복도하게 될 것입니다.

부산반빈곤센터 교육위원회 주최로 5월부터 시작한 회원교육 ‘서로배움터’는 이런 감수성의 날을 세우고 우리가 이 변곡점에서 시국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투쟁과 더불어 ‘서로배움터’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짙어지는 계절만큼이나 지금의 시국도 정리되고 새로운 흐름으로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다시 뼈야별에 거리로 나서야 할 테고 세차게 내리치는 비바람을 견뎌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굳건히 서야 할 것입니다. 그 길에, 쇠비름이 공유와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작지만 큰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편집팀장 김원석>

## 서로배움터 1강 빈곤과 반빈곤 운동

“빈곤은 \_\_\_\_\_다” 문장을 채운다면 무엇으로 채우고 싶나요? ‘선택이 아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등 답변을 해 주셨어요. 빈곤이 무엇인지 자기 기준에서 정의 내려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제시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들었던 답변 중에서 제일 와닿았던 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입니다. 장애운동에서도 개인의 필요와 욕구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이 있겠지만 빈곤을 나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느 정도 갖춰지면 빈곤이 아니게 되는 것인가.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받으면 빈곤이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OECD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빈곤층으로 보는데요. 다만 한국의 경우는 32%를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소득순으로 전국민을 일렬로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지점의 소득을 말하는 것인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생활보장제도뿐만 아니라 많은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렇듯 빈곤은 상대적으로 판단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특정한 ‘빈곤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다. 요즘의 빈곤은 아주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2020년 기준)전국 최고의 집부자는 부산의 주택, 아파트 등 총 1670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에도 같은 조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이었고 보유주택이 약 600채 였습니다. 만약 동일 인물이라면, 몇 년 사이에 1천 채나 되는 주택이 더 늘었다는 것인데 굉장히죠. 반면 전국적으로 무연고 사망자는 5415명에 이릅니다. 12년 사이 5배가 증가했어요. 얼마나 극단적인 사회인가요?

부산시는 사망한 지 3일이 지나 발견되면 ‘고독사’로 봅니다. 부산은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10명인 도시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60대가 가장 많습니다. 고립사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신 경우, 독거사는 혼자 살다가 돌아가신 경우, 무연사는 사망 이후에 연고자가 시신인수를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경우를 통칭하여 무연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고독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쏟아지는 대응책은 대부분 사후적인 대책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그 누구도 말하지 않지요.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 IMF 경제위기와 그로부터 이어진 실업과 불안정노동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깊은 토론을 하면 좋겠습니다.

IMF 때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던(해야했던) 인구가 1955~1975년생인데 이들이 대량해고와 실업

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가 된 것이죠. 또한, 이 시기에 비정규직과 정리해고가 합법화됐습니다. 동시에 실업, 빈곤 관련 단체들이 많이 생겨났기도 했었죠.

한국의 이런 사회적인 조건과 결부하여 빈곤에 이르는 일정한 생애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연구의 결과물은 아니고, 다년 간의 경험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IMF 당시 사회안전망이 충분했다면 이 같은 붕괴는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고 많은 이들이 해고와 실업에 내몰렸습니다. 한번 노동시장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복귀하기가 쉽지 않았죠. 가정과 관계가 해체됐고 또한 사회에서 배제되고 고립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미시적으로 보면, 알콜릭이나 각종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1인가구가 되면서 건강을 스스로 돌보지 못하고 장기간 돌봄의 공백이 발생했죠. 이러한 국면마다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있다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외로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의 문제일까요? 외로운 죽음은 사회문제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누구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사고나 질병,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소득상실 등 이런 위기는 절벽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때에 나를 받쳐주는 튼튼한 그물망이 있으면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물망이 있어도 부실하고 구멍이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서 죽거나 죽을만큼 다치게 되겠죠. 많은 그물망 중에서도 가장 최후의 그물망, 즉 최후의 안전망이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 관련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이런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세, 복지축소, 규제완화, 민영화, 노조파괴. 2013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비수기에 버는 돈이 100만원 남짓이었는데 차량유지비, 통신비, 식비를 자부담했기 때문에 빼고나면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급여였다고 합니다.

2013년, 최종범 열사 “너무 힘들었다. 배고파 못살았고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다”  
2014년, 염호석 열사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질 못하겠으며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하겠기에...”

이것은 1970년, 전태일의 유서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40년이 지났어도 바뀐 게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노조가 생겨서 어느 정도 인간다운 삶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안전망만큼이나 노조도 중요한 것입니다.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프롤레타리아라고 합니다. 구조조정 등 우리의 의사, 노력과는 별개로 누구나 실업자가 될 수 있고 빈곤층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노동자와 빈민의 처지는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노동과 사회안전망 문제 두 가지에 모두 단결해서 대응해야 하는 것이죠. 사회는 끊임없이 계급분열을 조장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치고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벽을 허물고 단결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 71년 광주 대단지 사건, 광주민중항쟁, 88올림픽 때의 빈민들의 조직된 저항, 96년 해운대 승당마을 세입자 투쟁, 2009년 용산참사… 우리에게는 투쟁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키워드를 반대로 하면 우리의 가치입니다. 평등, 사회권, 삶의 권리, 인식과 구조의 개선, 단결과 연대, 그리고 애도와 정신계승. 역사와 투쟁하던 삶들을 기억하고 함께 실천합시다. <최고운 대표>

## ‘잊혀지지 않을 권리’를 기꺼이 지키려는 사람들

‘부산시민 공영장례 조문단 양성과정’은 2023년 조문단 및 모니터링단을 시작으로 2024년에 2기, 3기를 거쳐서 올해 4월에 4기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양성과정을 진행할 때마다 부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성에 놀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하철역에 붙은 홍보 포스터를 보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다양한 관심을 가진 27명의 신청자와 함께 4기 양성과정을 시작했습니다. 4월 1일(화) 1강에서는 ‘삶이란, 죽음이란’, ‘키워드로 풀어보는 공영장례’라는 주제와 우리 센터 소개 및 조문단 실습에 대해서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죽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문화가 있어서 그렇지 않은 다른 나라의 장례식 문화를 살펴보고, 근본적으로 삶과 죽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죽음이에요’라는 그림책을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공영장례는 기본권 중에 사회권에 해당하는, 국가가 국민에게 마땅히 보장해야 할 권리라는 것을 공영장례의 기본 개념과 함께 소개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교육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첫날부터 조문단 실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드렸습니다. 조문 실습은 교육과정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일주일 뒤 2강에서는 교육생으로 참여하신 알렉시아 수녀님의 천상병 시인의 ‘귀천’ 시 낭독으로 교육의 문을 열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남기고 하늘로 돌아가면 좋을까요?’라는 첫 문장으로 민법상 효력 있는 유언장 작성법에 대해서 이주언 공익변호사님이 강의해 주셨습니다. 이주언 변호사님은 돌발 상황조차 자연스럽게 받아주셨고 교육생들의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이어서, 최고운 대표가 부산시 공영장례 조례 제정 당시의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조례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해주셨습니다. 아마 공영장례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연고자의 범위, 장사법 조항, 사전장례주관자 지정사업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강사님(맹정은 건강사회복지연대 운영위원, 3기 조문단)은 공영장례에 대해서 풀어보는 시간으로 이야기를 풀어 주셨습니다.

특히, 맹정은 강사님은 복지 예산 관련 자료와 함께 부산시 공영장례 조례를 여러모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일반 빈소는 ‘슬픔과 애통함’이 있지만 공영장례 빈소는 이와 함께 새로운 상호부조로서 ‘연대’가 있다는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주셨고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수상 소감으로 강의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각기 다른 3명의 강사님이셨지만 마치 잘 어울리는 연주를 듣는 것처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딱딱한 이론뿐

만 아니라 감성적인 부분까지 잘 버무려진 시간이어서 교육생들의 집중도가 좋았습니다.

4월 15일(화) 3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날은 부산시 공영장례 지역운동 관점에서 그동안 조문단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조문단 활동의 짧은 역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조문단 활동 초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조문단 활동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3강에서는 역할놀이(Role Playing)를 활용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시작하기 전 그동안 계속 듣기만 했던 방식이 아닌, 일어나서 움직이면서 서로 만나서 인사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교육생들이 얼마나 활발하고 좋아하시는지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그 열기를 이어서 ‘주위에 존엄하지 못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별로 모여서 주제와 관련해서 겪었던 경험이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관련있는 하나의 장면을 상상한 다음 모두가 역할을 맡아서 5분 정도 즉흥적으로 상황극을 발표했습니다. 다소 어색한 면도 있었지만 전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충분한 소통과 공감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가 성인이 되어 결국 고독사로 삶을 마무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역할놀이로 보여 주셨고, 실제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황당한 경험을 재구성한 역할놀이를 통해서 장례식장 담당 직원의 속내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 상황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4강은 부산시 공영장례 운동의 미래에 대한 내용으로, 혈연과 제도를 넘어 동반자 관계를 지향하는 ‘내 뜻대로 장례’로, 생전 돌봄에서 임종 돌봄으로 이어지는 ‘온전한(통합) 돌봄’으로, 모든 시민에게 사회권이 보장되어 장례식의 공공성이 회복되는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장기적인 비전과, 단기 전략으로 실천해야 할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이어서 조별로 교육생들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수료증 대신 조문갈 때 소지할 수 있는 명찰을 나눠드렸습니다. 4기 수료생 중 24명이 수료를 하셨고, 15명이 개근하셨습니다. 4기 교육생들의 조문 실습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조문 가시는 분, 5~6명이 함께 모여서 가기도 하고 혼자서 가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빈소,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빈소 등 다양한 경험을 현장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식을 주제로 한 영화 ‘스틸 라이프(Still Life)’에 나오는 존 메이(장례 담당 공무원)는 고인들의 얼굴 사진을 정성스럽게 간직했고, 고인과 생전 인연이 있던 사람을 찾으러 다녔고, 종교적 예식을 준비하고 고인에 대한 애도사까지 직접 작성하면서 심지어 고인의 취향을 반영한 음악을 고르기까지 했습니다. 존 메이는 단순한 직업적 책임감을 넘어서 아무도 찾지 않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죽음’과 ‘잊혀지지 않을 권리’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산시민 공영장례 조문단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부산 시민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잊혀지지 않아야 할 권리’를 기꺼이 지키려는 공동체 권리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하반기 7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5기 양성과정이 이어집니다. 우리 모두의 ‘잊혀지지 않을 존엄한 권리’를 기꺼이 지키고자 하는 부산시민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임기현 활동가>

4기  
공영장례  
조문단

4월 1일부터 매주 화요일 총 4주간 4기 양성과정이 진행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엄선된 참가자 중 24명이 최종 수료하셨고요. 지금도 열심히 조문활동을 하고 계신답니다. 7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5기 양성과정이 이어지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파면  
선고날



정현성  
동지  
11주기



▲ 5월 17일 고 정현성 동지 11주기 추모식

인천  
홈리스  
추모제



▲ 4월 12일 인천 홈리스 무연고 사망자 합동추모제

4월 9일 영화속·재생원 진실규명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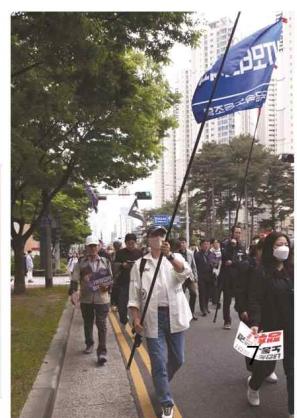


▲ 4월 12일 인천 세월호 추모관 방문 및 11주기 추모식 참여

운영위  
및 노동절  
집회참석

5월 1일, 밭개마을카페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어요 :) 전포 밭개 마을에는 과거에 달품협동조합 차원에서 주민교육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센터가 완공된 모습을 보니 좋았네요. 회의를 모두 마친 후 노동절 집회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김택수 신임 운영위원께서 깃발을 들어주셨는데요~

들어보시곤 깃대가 너무 낡았더니 새것으로 구입 후에 손수 부품도 장착해 주셨답니다 :) 감사합니다! 새깃대 들어보세요!



# #길위에

## 서로배움터 1강, 2강



1강은 빈곤과 반빈곤운동  
선화님 생파도 함께 :)



2강 기현님의 강의로  
'애도할 권리,  
공영장례'

◀ 5월 28일, 서면시장 투쟁문화제에서 길위에는 '청계천8가'와 '또다시  
앞으로'를 힘차게 부르며 연대했습니다 (사진 : 정남준 님)

## #현장에서 힘을\_모으고 연결한다

4월 13일 한화오션, 세종호텔 농성장 지지방문

4월 18일 이수기업 200일 집회(15시, 현대차정문)

4월 26일 옵티칼 희망버스

5월 9일 한화오션 희망텐트

5월 17일 518 민중항쟁 45주년 전야제 참석



옵티칼\_박정혜\_515일  
세종호텔\_고진수\_113일  
한화오션\_김형수\_83일

(6월 5일 기준)



# 남 보 리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부산에서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는 남보리입니다.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소모임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부산페미니즘세미나 활동, 인권세미나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차제연)에서도 활동을 했었고요. 현재는 권리찾기유니온 대의원이고 2019년부터는 반빈곤센터의 회원이 됐죠. 일이 바쁘고 늦게 마치다 보니까 항상 뒷풀이 때만 나타나는 사람이지만요. 항상 일벌입니다. 말벌이 되고 싶은 일벌(웃음).



**페미니즘 세미나는 언제까지 하셨던 거예요?**

2017년 미투 운동<sup>1)</sup> 일어나기 전,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높았을 때 했어요. 모임 구성원이 대부분 생업이 있는 사회인이고 제가 바쁘다 보니 열심히 하진 못 했어요. 처음 모임 내 문제가 생긴 것은, 저희 깃발에 캐릭터가 있었는데, 교차성 페미니즘<sup>2)</sup>을 나타내기 위해 캐릭터 눈 색깔을 무지개색으로 바꾸자고 했을 때 발생했어요. 사실 눈 하나를 무지개색으로 바꾸자는는데는 이견이 없었어요. 문제는 제가 다른 쪽 눈은 트랜스 플래그 색으로 바꾸자고 하는데서 생겼죠. 열성적이던 구성원 한 명이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거든요.

**무지개는 되는데 트랜스젠더는 안 된다는 건 무슨 차이일까요?**

남성의 몸이지만 정체성이 여성인 트랜스여성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성의 영역에 침입하여 해를 가하는 잠재적 가해자로 규정하며 배척하죠. 사실 이건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오래 묵은 싸움입니다. 이번에 탄핵 광장에서도 무지개존에서 깃발을 들고 있으면 “저도 퀴어<sup>3)</sup> 지지해요. LGBA.”라고 말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부러 T를 빼서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거예요. 학자로는 쉴라 제프리스가 유명하고, 해리포터 작가인 조앤K롤링도 트랜스젠더 배제로 유명합니다. 쉴라 제프리스는 외국 여성주의 학회에서는 감정적이고 가학적이며 근거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주장이나 백인 우월주의 진영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자주 쓰는 사람이고, 조앤K롤링의 인종차별

1) 2017년 이후 트위터 등을 통해 #MeToo('나도 피해자다'라는 의미의 해시태그)와 함께 세계적으로 일어난 성폭력 고발, 성차별 철폐 운동. 이를 계기로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올라갔다.

2) 생물학적 여성 외에도 젠더, 인종, 빈곤, 장애 등에 관한 다양한 억압에 대해 함께 저항하는 이론.

3)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말. 원래 '퀴어queer'는 '이상한', '괴상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1980년대 미국 인권운동의 영향으로 성소수자들이 스스로 퀴어라고 지칭하면서 의미가 바뀌었다.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의 앞글자를 따서 'LGBT'라고 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2000년부터 매년 퀴어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다. A는 무성애자(Asexual)를 의미한다.

은 워낙 유명하죠. 해리포터 영화 제작 당시 출연 조건이 모두 영국인일 것, 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요? 아시아계 인물이 단 한명 등장하는데 이름이 ‘초챙’(‘칭챙총’이 비하발언인 건 다 아시죠?), 후속작에서 아시아계 여성은 아예 인간의 모습으로 변한 뱀으로 나오죠. 혐오는 연결되어 있어요. 국내에서는 열다복스와 인천여성의전화 공동주관으로 쉴라 제프리스를 초청했던 적도 있어요. 강연 제목이 ‘젠더는 해롭다’였습니다.

###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에 부산 집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잖아요.

처음 두 번은 참가자로 결합을 했어요. 가서 두 번 발언을 했었는데, 이후 사회자로 결합해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당시 대학가마다 페미니즘 동아리가 있었고, 부산 성폭력 성차별 끝장집회도 대학생들과 여성-엄마민중당이 주최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아요. 물론 부산 여성 단체들도 적극적으로 결합했고요. 미투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었는데 매주 집회를 이어나갔던 것 같아요. 성폭력, 성차별 끝장집회가 끝나고도 안희정 성폭력 고발되었을 때도 기자회견을 했고요. ‘젠더파티’도 2년에 걸쳐서 했죠. 그런데 ‘젠더파티’에서 역할을 했던 여성단체 A대표가 sns에 트랜스젠더 헤이트 스피치(혐오발언)를 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동아대 권명아 교수님이 즉각 날카롭게 비판했고 대학가 ‘영페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저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잘 해결되진 않았어요. 단톡에 있던 대부분의 선배 페미니스트들이 ‘라떼는~’ 혹은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라는 말들로 A대표를 옹호했거든요. A대표의 인덕이 높았던 것도 맞고 저도 좋아하는 분이지만.. 그때 처음 낡은 운동권의 한계를 느꼈어요.

그랬군요. 페미니즘 내부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근데 어떤 논쟁이나 토론이 벌어졌을 때 그 거를 성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에 달린 것 같은데 사실 우리한테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운동 사회 전반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은 더 심하죠. ‘공동체적 해결’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글쎄요. 잘 된 해결을 본 적이 있나요?

### 아까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2017년에 정의당 전국위원 성폭력을 공론화했어요. 가해자가 당 내에서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었어요. 전국위원이었고 지역구 부위원장이었고, 무엇보다 당시 정의당 내 페미니스트 조직에서 선거 운동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성폭력을 공론화하기 전, 페미니스트 조직 대표에게 먼저 피해에 대해 알렸어요. 경위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래놓고 그날 바로 가해자를 만나서 사정 청취를 하고 직후 조직회의를 열어서 ‘이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다. 이 사람은 약자가 아니다. 공론화를 준비한 과정이 소름끼친다.’라고 했었고, 같은 부산에 살 뿐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그저 먼 페친에 불과했던 당원은 해당 회의에 참석해서 ‘이 피해자를 잘 아는데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늘 이런 식으로 소속 조직을 다 깨어왔다’고 말하는 일도 있었어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페미니즘 세미나가 흐지부지 와해된 것은 사건 이후였고, 이전에 소속된 단체는 동물보호단체 한 곳이었는데 지금도 건재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악의적으로 거짓말하며 피해를 부정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악에 밭쳐서 공동대책위 전문가들의 만류를 무시하고 전면에 나서서 많이 싸웠는데, 지금은

전문가의 말을 따르지 않은 것을 후회해요. 오랜 시간 이어져 내려온 사회 문화 자체가 여성에게 폭력적이라서 사실 성폭력은 어디에서든 일어납니다. 가장 진보적인 인권단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성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 가해자를 분리해서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 요구가 합리적이면 이에 따라 조치하고, 조직문화를 재정비한 후 앞으로 나아가려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반사적으로 조직 보위의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성폭력을 인정하면 그동안의 운동 경력이 모두 부정되고 조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서 그런 걸까요.

안타깝게도 공동체적 해결에 실패하면서 결과적으로 피해자도, 가해자도 조직을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 같아요. 피해자는 상처가 남은 채로, 가해자는 낙인이 찍힌 채로 이렇게 하나둘 조직과 운동을 떠나는 것이 건강한 걸까요. 실패해왔더라도 계속 공동체적 해결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공동대책위와 운동의 힘으로 당 대표에게 사과를 받았잖아요. 아직 부산시당과 남은 문제가 있지만요. 묻어뒀던 문제를 이제 매듭지어야겠다고 생각한 건, 공동체적 해결을 해보고 싶어서였어요. 운동 연대에서 가해자 조직을 배제하는 것으로 간단히 사건을 해결해 버리면 첫째, 피해자의 권리와 일상 회복이 요원해지고, 둘째, 어떤 조직도 남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원래도 사회운동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동물권 운동을 오래 했고요. 처음 집회에 나간 건 박근혜 탄핵 집회 때였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선토론에서 '동성애 반대한다'고 했을 때도 혼자 시위에 나갔어요. 폐미니즘 세미나를 하게 되면서 집회에 처음 깃발을 들고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성폭력, 성차별 끝장집회와 폐미페스타에서 사회도 보았고, 인권 세미나도 만들고, 차제연에도 결합했죠. 원래 사회운동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일례로, 2011년 희망버스 때는, 제가 동삼동 살았으니까 영도에서 나가려면 한진중공업을 지나야 했거든요? 근데 집회 때문에 대로가 다 막혀있고 2시간 동안 차가 안 움직였어요. 제가 시민한테 피해준다고 짜증을 내니까 아빠가 평소 조용한 분이신데 그때 정말 크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프랑스 사람들은 노동자가 시위를 하면 정부와 기업에 빨리 해결하라고 항의한다는데, 너는 내용도 모르면서 노동자들한테 짜증내느냐. 그렇게 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살거면 공부 때리쳐라고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사람이 참 다면적인 게... 아빠는 원래 보수당 지지자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빠 때문에 민주노총 시위는 '까지' 않게 되었어요... 공포로 학습된 노동권.

### 마침 오늘 차제연 활동을 다시 하겠다고 결심을 하신 거잖아요.

2017년, 광장의 힘으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이후 치뤄진 5월 대선에서, 인권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후보가 "동성애 반대한다"고 말하는 일이 있었죠. 당선이 확정적인 상태였는데도 말예요. 문재인 대통령께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는 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게 된 일련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옆 동네에서 여중생 2명이 동반자살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학부모나 선생님이 보기에는 우등생인 아이가 노는 아이와 어울리는 게 보기 좋지 않았던 거죠. 하루는 담임 선생님이 반 친구들 다 있는 데서 아이들 가방을 털었대요. 그 자리에서 가방에서 나온 편지들을 전부 읽어보더니 던진 첫 말이 "너희 동성애 하니?"였어요. 학부모한테도 전화해서 알렸고 부모는 아이를 집에 가두고 외부와 단절을 시켰다고 합니다. '동성애하는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리고 결과가 동반자살이었죠.

제가 가르치던 남학생은 색깔 있는 립밤을 발랐다는 이유만으로 ‘니가 게이냐?’ 라며 선생님께 뺨을 수십대 맞았다고 합니다. 그 학생이 정말 게이였다면, 그 학생이 맞는 것을 보는 학생들 중에 게이가 있었다면,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까요?

사실 이 편지는 손아람<sup>4)</sup> 작가님께 쓴 편지였는데, 작가님께서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보아야 하는 편지’라고 다시 쓰도록 권유해서 수신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된 거였어요. 일련의 루트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께 편지 전달이 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8년 만에 받아 든 답장은 또 ‘나중에’입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7%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해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낙태죄<sup>5)</sup>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는데도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지요.

올해 탄핵 광장 어땠습니까? 광장의 중심은 누가 뭐래도 여성, 성소수자들이었어요. 남태령<sup>6)</sup>에서 농민과 함께 차벽을 연 첫 사람들입니다. 부산은 쿠어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쿠어깃발존이 따로 있었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윤석열 파면시키고 대선 시작되니까 여성과 성소수자는 쑥 지워졌어요. 기호 5번 권영국 후보말고는 아무도 성평등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민주주의 지키려고 광장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성평등과 차별 금지 없이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나요? 그놈의 ‘사회적 합의’는 도대체 몇 %의 인구가 합의해야 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다. 다수결이 무조건 옳나요? 지동설과 인종차별이 다수의견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옳았나요?

제가 부산차제연에서 탈회할 때 입장문을 냈었습니다. 정의당부산시당이 2차 가해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부산차제연은 이 사태에 대해 왜 아무런 검토가 없느냐 규탄하고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재합류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제 이 문제를 매듭짓고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의당 부산시당에 해결하자고 연락했는데 ‘나중에’라는 답이 돌아왔고, 이에 항의해서 탈당계를 냈더니 제 탈당 사유를 누락해서 중앙당에 올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이고.

온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사실 그동안 해결하기 위한 과정도 너무 지난한 일이었는데 그걸 다시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큰 결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건데 보리님에게 차별금지법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저는 치열한 활동가가 아닙니다. 언제나 생업이 가장 먼저인 사람이에요. 언제나 느슨하게 연대하고 활동해요. 하지만 마음 속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동물보호운동을 하며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동물들을 보면 정신적 고통이 무척 심합니다. 그게 괴로워서 운동에서

4) 2008년 데뷔한 페미니스트 작가. 2010년, 용산참사를 비롯한 수 많은 대한민국의 법조 비리를 소재로 한 ‘소수의견’을 출판했고, 이 장편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2013년 제작돼 2015년 개봉했다.

5) 오랜 기간 여성운동의 결과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국회에 2020년 말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요청했다. 21대 국회(2020년 5월~2024년 5월)에서 형법 개정안(정부안 포함 6개)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정부안 포함 7개)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종료로 폐기됐으며 현재는 입법의 공백상태이다.

6) 2024년 12월 21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행진 시위에 트위터 등으로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응원봉과 각자의 깃발을 들고 결합했고, 경찰 버스 차벽을 밤샘농성과 연대로 해제시켰다. 직접적으로 시위에 참여한 것 외에도 전후로 전농과 투쟁하는 노동조합에 응원메세지와 함께 수 많은 후원을 보내며 탄핵 국면에 거리에 나온 시민들과 기존의 운동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눈을 돌리면 꿈에서 죽어가는 동물을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하나만 해결해 준다면 어디 소속 이든 어떤 정치인이든 지지하겠다’는 마음이 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저한테는 그런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죽은 트랜스젠더 친구만 세 명입니다. 저는 주 7일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사람이라 친구가 없는 편인데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 앓고 싶지 않습니다.

### 퀴어 분들이 이번 탄핵 국면에서 대단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퀴어는, 제가 가는 모든 시위에 항상 있었어요. 이번 탄핵 광장에서도 아주 큰 역할을 했죠. 여성과 퀴어들이 남태령 시위에서 차벽을 여는 것을 보셨죠? 이른바 ‘말벌’이라고 하죠? 평소 사회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들도 광장에 많이 유입되었고, 그 중 일부는 여전히 광장에 남아서 전국 어디든 투쟁이 있으면 연대하려 달려갑니다. 가끔은 돈도 시간도 많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을 정도예요. 그분들은 노동운동 역사와 열사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하고 투쟁현장에서도 유의미한 연대를 하고 싶어해요. 정당과 단체들, 민주노총에서 이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 (민수)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슬램덩크는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미남이 많이 나와서요(웃음). 본가가 엄격해서 시험점수가 90점 이하면 시험지를 갈기갈기 찢었어요. 만화책도 볼 수 없었죠. 책 대여점에서 빌린 만화책을 보고 있으니 엄마가 만화책도 갈기갈기 찢었어요.

하루는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그 친구 오빠가 슬램덩크 책을 다 소장하고 있었어요. 몇 권 읽고 ‘엄청 웃기다’라고 생각했었어요. 2023년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아저씨들이 추억에 젖어 보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볼 생각이 없었어요. 학생이 추천해서 봤는데, 인트로에서 스케치가 속속 그려지더니 둥둥둥 드럼 소리와 함께 캐릭터가 고개를 들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어릴 적 만화책에서 본 그림이 살아서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심장이 쿵쿵쿵 뛰는 걸 태어나서 처음 느꼈어요. 그러면서 입덕을 했죠. 저는 주7일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사람인데, 근무시간을 쪼개서 전국 영화관을 쫓아다니며 영화관에서만 182번 봤어요. 지금은 피규어를 사 모으고 있죠. 일만 하고 살아서 이렇다 할 취미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취미가 생긴 것 같아요.

### 취미가 없었어요?

네,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또 일하다 쓰러져 자기 바쁘죠. 가끔 책읽는 것 외엔 취미가 없었어요. 슬램덩크 보면서 취미가 생겼어요. 대선 돌입하면서 화나는 일이 많아서 요즘엔 차를 마시려고 다 구를 샀어요. 황차라는 발효차를 마시고 있고, 다도 유튜브도 보고 있어요. 다도를 하면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해서 따라하는 중인데... 그냥 차 마시는 화 많은 여자가 되었어요.

### 탄핵 집회에서 ‘서태웅’ 깃발로 많이 주목받기도 하셨었죠.

저는 사실 최애가 서태웅, 정대만, 이명현 셋 중 한명으로 늘 바뀌고 김수겸, 윤대협, 양호열뿐 아니라 슬램덩크 외 작품에도 좋아하는 캐릭터가 많은데 서태웅으로 기억을 하시니 이제 다른 깃발을 못 들게 되었어요. 한편, 저에게 ‘서태웅이 누구냐? 자기 아들 아니냐?’ 하는 아저씨도 있었고, 그리고 그 깃발에 서태웅이 나온 ‘부산고’가 적혀있는데 그걸 보고 ‘부산고 나왔냐?’고 말 거는 아

저씨도 있었어요(웃음). 참고로 부산고는 남고입니다.

4월 4일 윤석열 씨 파면되던 날에, 처음엔 소박하게 달픔에서 생중계를 같이 볼 생각이었는데 올 수 있는 사람 오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더니 보리님 트위터를 본 BBC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기도 했죠.

파면 선고 순간의 시민들의 반응을 촬영하겠다고 했죠. 고운님이 장난스레 대강 만든 포스터를 공유했는데, 트위터 친구 중 인플루언서가 공유를 하는 바람에 BBC가 연락 온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양한 단체의 분들과 시민들이 왔는데 영상에 제 '서태웅' 깃발이 너무 크게 나가는 바람에 '그냥 서태웅 친위대 아니냐'는 댓글도 달렸던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덕분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트위터에서만 보면 사람들을 만나서 좋았어요.

(민수) 보리님은 그날도 그랬고, 주변사람들에게 음식이든 뭐든 정성을 들여서 대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해주다가 상처 받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반대로 민수님, 고운님처럼 저에게 늘 펴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정말 가진 재주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지금 이렇게나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호의로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랬듯이 누군가도 제 '호의' 때문에 좋은 날이 있으면 좋겠어요.

(민수) 최근에 강아지 레오, 고양이 일호를 임시보호하다가 또 입양보내기도 하셨는데... 동물에 애정이 깊은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저는 동물이 사회 최약체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언어로 자기 권리를 말하지 못하니 제가 대신 말해야 하죠. 게다가 인간과 다른 종이면서도 인간인 나와 교감을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신비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동물권 운동이 다른 시민운동과 많이 결합하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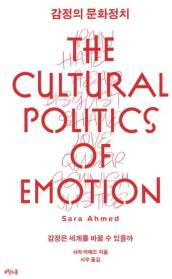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센터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너무 뒷풀이만 가서 죄송합니다(웃음). 저는 택수님의 옛날 학생운동 시절 얘기와 우리가 다 함께 민중가요 부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말벌들도 함께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센터도 평균연령이 점점 올드해지잖아요. 독서모임, 영화모임, 탐방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개설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택수님 전대협 얘기도 재밌고, 민수님이 염호석 열사 투쟁 얘기해 주는 것도 좋고, 원석님의 장애인권운동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고운님, 민수님과는 차제연에서 처음 만났지만 아마 김용균 동지 산재사망 관련해서 집회하고 뒷풀이하면서 친해진 걸로 기억해요. 그때 민수님이 너무 웃기는 바람에 양쪽 광대뼈가 다 아파서 얼굴이 너무 아프다고 했더니 마사지라도 하라고 차가운 소주병 건네 주시고(웃음) 그날 너무 유쾌했던 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성폭력 문제로 싸울 때도 든든하게 지지해주셨죠. 즐거운 날, 힘든 날에 곁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반빈곤센터에 조직될 수 있었습니다(웃음). 다른 분들도 반빈곤센터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최고운>

# 감정의 문화정치

『감정의 문화정치』, 사라 아메드, 시우 옮김, 오월의봄, 2023



5월이다. 거리의 나뭇잎들이 싱그럽게 짙어지고, 흰꽃들이 환하게 만발한 계절이다. 12.3을 지나 이 계절에 닿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오래 분노하고 불안한 시간을 보냈다. 그 분노와 불안이 사람들을 광장으로 불러냈고 그곳에서 함께 소리치며 분노를 발산하기도 하고 또 그 순간에 함께 있다는 연대감과 즐거움을 느끼기도 했다.

우리가 느꼈던 분노와 불안 그리고 연대감과 즐거움 같은 감정은 우리의 사회적 삶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

근대적 이분법적 사고는 이성과 감정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았고, 이때 감정은 이성의 부족, 이성의 결여를 의미했다. 사라 아메드는 그동안 사회를 읽어내는 데서 배제 또는 도외시되었던 '감정'에 주목한다. 그는 『감정의 문화정치』에서 '감정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현재의 통치가 사람들의 감정을 겨냥하는 지점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그 작동의 매커니즘을 분석한다. 아메드는 '고통, 증오, 공포, 역겨움, 수치심, 사랑'의 감정이 작동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면서, 권력이 어떻게 부정적 감정을 타자 탓으로 돌리게 함으로써 그 원인인 불평등한 권력 구조를 은폐하는지 보여준다.

매년 불법 이주자와 가짜 난민 신청인이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떼지어 영국으로 끊임없이 들이닥치고 있다. (...) 이유가 무엇인가? 영국의 '소프트 터치' 정책 때문이다. 영국이 만만하기 때문에 손쉽게 공짜로 편의와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당신이 국민이라서 낸 세금으로!(영국 국민전선 포스터) <sup>7)</sup>

'소프트 터치'는 쉽게 설득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우리 표현으로 '무른' 사람 정도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은유는 백인 중심의 국민이, 연약한 피부같은 것으로 암시된 국가를 보호해야 하는 것으로 느끼게 한다. 그리고 난민 신청인(죄다 '가짜'로 보이게 된)과 난민의 형상을 한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은 연약한 국가를 위협하는 증오의 대상으로 만든다.

지뢰, 지뢰라는 말은 당신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나요? 아마도 끔찍한 상처를 입거나 사고를 당한 수 많은 이들이 떠올라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밀려오는 분노와 차오르는 슬픔을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당신이라면 지뢰를 성공적으로 제거했다는 소식을 반기시리라

7) 『감정의 문화정치』, 사라 아메드, 시우 옮김, 오월의 봄, 2023, 23쪽.

확신합니다. 이 모든 일은 당신의 정기후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sup>8)</sup>

위의 글에는 지뢰에 대한 ‘당신’의 감정을 주로 서술한다. 그것은 지뢰 때문에 피해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후원하는 사람들의 슬픔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지뢰’와 관련된 전쟁의 역사는 지워지고 고통과 슬픔의 원인으로 오직 지뢰만 지목하게 된다.

이와 같이 타인의 고통을 보여주고 독자의 연민에 호소하여 자선에 기대는 말들은 넘쳐난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나 빙국의 기아에 대한 후원 광고들이 그렇다. ‘빈곤 포르노’라고 비난 받기도 하는 그 광고들은 아프리카 어린이를 고통을 ‘지닌’ 존재로 만들고, 이때 고통받는 어린이들은 광고 수신자들이 후원을 결심하게 되면 그제서야 고통에서 놓여날 수 있는 수동적인 존재가 된다. 이같이 도움을 주는 자와 수혜자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권력관계가 형성되고 그 권력관계는 특정 인종에 대한 일반적 관계로 확대된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통받는 아프리카 어린이를 전시하고 후원을 받는 과정에서 아프리카의 고통의 원인-유럽인에 의한 아프리카식민지 수탈의 역사-을 삭제하고 망각한다는 것이다.

선의를 가진 사람이라면 호주 정부와 원주민의 진정한 화해는 호주 정부가 과거 원주민에게 저지른 강탈과 억압(...) 같은 잘못을 인정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는 것이다. 과거에 벌어진 일에 가담하지 않았던 호주인들이 개인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다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과거에 했던 일과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던 일 가운데 자랑스러운 일과 부끄러운 일이 모두 있다는 마땅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호주 총독)<sup>9)</sup>

위와 같은 발언에서 개인이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수치심은 느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고 말해지는 그 국가, 호주에는 백인 뿐 아니라 원주민도 구성원이다. 이 발화는 무의식 중에 호주의 국민을 백인 호주인으로 전제한다. 또한 이 발화는 고통을 호소하는 호주 원주민의 증언을 들은 국가의 죄책감을 드러냄으로써, 국가는 죄책감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그려지고 결국 원주민의 고통의 자리를 국가가 꿰차면서, 국가적 정체성을 확고히 한다. 이 과정은 호주의 구성원인 원주민을 다시 타자의 자리에 배치하고, 그 고통을 바라보는 백인을 ‘우리’로 묶어주는 접착제로 타자의 고통이 이용된다. 그 접착을 통해 ‘우리’가 재형성되는 과정에서 호주 원주민이 겪었던 고통과 원인은 사라진다. 정치가 타인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이라고 할 때, 그 고통을 야기한 역사에 대한 반성은 사라진다는 것이다.

아메드는 감정에 대한 다양한 사유들을 횡단하면서 감정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라거나 특정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예를 들어 ‘똥’을 보면 역겨움을 느끼지만, 그것은 똥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똥’ 자체가 역겨운 것은 아니다. 아가의 똥은, 토끼의

---

8) 위의 책, 57쪽.

9) 위의 책, 88쪽.

똥은 귀엽기도 하다.) “감정은 몸에 가해지는 행동의 힘이 늘어나거나 줄어듦에 따라 몸이 변화하는 것으로 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형성한다”<sup>10)</sup>고 말한다.

아메드는 또 사랑의 이름으로 증오를 행하는 증오단체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지난 겨울을 거쳐오면서 우리 사회에 문제적으로 드러난 극우의 준동을 떠올리게 한다.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 절규하며 탄핵을 반대하던 사람들. 그들은 단순히 생각이 다른 사람들만이 아닌 것이다. 그들은 타자를 향한 증오를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치기 하고, 그 조직 안에서 ‘애국’은 활동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면서, 자신들이 타자를 향해 행하는 폭력과 증오를 사랑의 이름으로 합리화한다.

다문화주의가 일종의 환대이자 조건적이 사랑이라고 할 때, “국가는 단일하지 않고 개방적이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존재’, 다시 말해 타자를 사랑하고 환영하는 존재로 여겨”<sup>11)</sup>지게 되는데, 이러한 국가 이상은 타자가(이민자, 난민 등이) 자신들의 차이를 드러내기보다 공통의 언어를 구사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게 강제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국가의 사랑과 환대에 대한 정당한 응답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아메드는 다양한 언술과 메시지 속에서 감정을 겨냥한 통치술을 작동을 파헤친다. 그러한 통치술의 작동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궁금리며 저항해야 할까?

유색인종 성소수자 페미니스트 실천적 지식인 아메드는 페미니스트 활동의 경험을 통해 저항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페미니즘은 여성 차별 경험의 고통을 서로 듣고 분노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고, 페미니즘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보는 경이를 경험하고 다른 이들과의 연결을 통해 기쁨과 희망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페미니즘이 가부장제 비판에만 몰두하지 않을 때, 여성이나 젠더 범주에만 갇히지 않을 때 움직이고 작동할 수 있다고 하면서, 페미니즘을 희망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일은 중요하고 말한다.



페미니즘 경험은 하나의 예시일 것이다. 우리는 미세하게 반복적으로 작동하는 감정의 통치술을 감지하면서, 서로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분노하고 그것을 통해 연대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헌신과 노동에 경이와 기쁨을 주고 받으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김남영 회원>

10) 위의 책, 30쪽.

11) 위의 책, 293쪽.

## 5.18을 기억하는 사람들

봄, 그 중에서 5월은 누군가에겐 꽃피는 즐거운 봄일 수 있지만, 아픈 기억을 가진 사람들에게 애잔한 계절이기도 하다. 특히 5월에 목숨을 던졌던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염호석 열사나, 장애해방운동가 정현성 동지를 기억한다면 더 그렇다. 그들이 목숨을 던졌던 14년도에는 봄에는 세월호도 침몰했으니 그 때의 봄은 유독 모두에게 슬픔과 분노가 교차하던 때였다.

그리고 5.18. 말해 무엇하랴 아픔의 역사임을 이제는 세계인들이 다 아는데...

필자는 윤석열의 계엄이 실패로 돌아가고 탄핵된 이후 맞는 5.18 기념 전야제를 맞아서 광주로 향했다. 이 날 광주는 다시 실행된 계엄의 공포를 슬기롭게 이겨 낸 한국 역사의 중심, 그 자체였다. 모두가 축제의 분위기였고 사람들은 계엄을 막아내고 내란범을 파면시키고 다시 맞은 봄을 진심으로 즐거워했다.

어느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통기타 거리에도 활기가 솟아나서 삼삼오오 모여 축하의 노래를 부르기에 바빴다. 여기에서 수십 년간 장사를 해 오신 카페 사장님이 부산에서 5.18 전야제에 왔다는 말에 두 손을 꼭 잡으며 연신 고맙다며 고개를 끄덕이신다. 카페서 맥주를 훌쩍거리던 다른 손님들도 모두 감동을 하며 필자의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모두 축배를 듭시다’ 외치며 합창으로 “그날이 오면” 노래를 두 손으로 마이크 쥐고 불렀다. 다함께 즐거웠으며, 지역과 성별과 나이와 모든 자본이 만들어낸 차별적 시선 따위 다 없애버리고 한바탕 춤사위가 벌어졌다.

그리고 새벽 무렵, 카페 사장이 실제 5.18 당시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려주기 시작했다.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갑자기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고, 그곳에 덤프트럭이 와서 시신들을 운동장 한가운데 쌓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헌혈하고 지나가는 여성들을 무자비하게 총을 쏴서 죽이거나 그 시신을 다시 칼로 훠손하는 만행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며 숙연해졌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당시 사망자 숫자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번 계엄 사태가 이들에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다. 다시는, 다시는 이런 흉악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이번에는 관련자 처벌이 단호하게 이어졌으면 좋겠다.

다음 날, 망월동으로 향했다. 하지만 망월동 묘역에는 이미 온갖 정치 세력들이 찾아와서 시커먼 먼지만 일으키고 있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망월동 맛집을 찾아 점심을 한술 뜰다.

“시골밥상집” 조용한 골목 안에 넓은 마당을 보유한 집이다. 여긴 대체 언제 지었는지 모를 정도로 오래된 시골집을 개조한 식당이다. 오래 돼서 나무가 갈라진 마루 위에 탁자를 보니 어릴 적 생각도 나며 정다운 느낌이 들었다. 여긴 메뉴가 오직 백반 하나뿐이다. 백반 한상을 시

켰더니 금세 상이 차려져 나왔고, 입을 떡 하니 벌리며 상을 바라봤다. 전라도는 역시 전라도다. 백반 상이 너무 화려해서 어디서부터 손 대야할 지 모르겠다. 따라 나온 시락국부터 한입 떠봤다. 담백한 듯 무청 자체의 향을 너무나도 잘 살렸다. 전라도 특유의 이런 음식 스타일이 참 좋다. 그리고 밥도둑 만난 마냥 순식간에 밥그릇을 비웠다. 반찬들은 하나같이 맛있었고, 크게 짜지 않아서 좋았다. 특히 평소에 잘 먹지 않는 고추 장아찌까지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랬다. 원래 고추 자체의 향이 사라진 장아찌는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먹는 순간 이건 이미 고추의 맛을 능가한 새로운 음식이 되어 있어 놀랬다. 졸깃한 새우장 등의 갑각류 맛과 간장게장의 향이 동시에 났다. 어떻게 이런 맛이 가능한지 너무 기묘하다. 하... 전라도 백반은 역시나 고수의 세계 그 자체다.

배부르게 먹고 나니 다시 5.18 당시가 떠올랐다. 도청 투쟁을 지지하던 수 많은 시민들의 손길에 음식들이 점점 도청에 쌓였었다고 한다. 심지어 모인 음식들이 너무 많아져서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시 나누어 줄 정도였다고 한다. 이제 그 도청에 남아 싸우던 이들은 모두 한 줄의 흙이 되어 망월동에 잠들어 있고,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망월동을 찾으며 그 넋을 위로한다. 그리고 망월묘역을 들렀다 오는 이들에게 밥을 맛있게 지어 정성으로 대접하는 식당들이 있어 광주를 또 다른 이름으로 기억하게 된다.

광주는 밥이 맛있고 정이 가득한 지역이며, 투쟁을 자랑스러워하는 지역이다. 내년에 또 오리라 다짐하며 식당 문을 나섰다. <김민수 운영위원>

**시골밥상집 (광주 북구 동문대로 634-5)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 ★쇠비름 독자퀴즈★

책 『감정의 문화정치』를 쓴 작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10-5135-7957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부산반빈곤센터 2025년 4월 ~ 5월 회계보고

			4월	5월
수입	이월금	이월금	2,077,463	1,652,641
	회비	현금	311,500	326,500
		CMS	1,479,650	1,664,865
	후원금	후원금	430,000	110,000
	재정사업	재정사업	0	0
	교육사업	교육사업	0	0
	기타수입	공공요금정산	216,914	0
		기타수입	0	128
	공모사업	공모사업	0	0
수입합계			4,515,527	3,754,134
운영비	임대료	사무실임대료	300,000	300,000
	공공요금	공공요금	47,380	41,260
	비품비	비품비	16,900	0
	소모품비	소모품비	0	10,250
	교육비	활동가교육비	0	0
		활동비	1,900,000	1,900,000
	인건비	보험료	10,000	13,000
		상여금	0	0
		퇴직금적립	190,300	190,300
	CMS사용료	CMS사용료	57,816	57,781
	소 계		2,522,396	2,512,591
지출	연대사업비	분담금등	0	0
	선전인쇄비	소식지등	228,000	0
	조직화사업비	조직화사업비	53,550	0
	회원사업비	회원사업비	18,000	161,000
	회의비	회의비	0	6,500
	교육사업비	교육사업비	0	0
	재정사업비	달달한품앗이	0	0
	출장비	출장비	40,940	0
	은행수수료	은행수수료	0	0
	예비비	예비비	0	0
	공모사업비	공모사업비	0	0
	소 계		340,490	167,500
	지출합계		2,862,886	2,680,091
잔액		1,652,641	1,074,043	

\* 아름다운재단 공모사업이 선정되었고, 해당 사업비는 별도회계로 처리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임기현 활동가에게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사진 : 정남준



사진 : 이인우



부산반빈곤센터는 2010년 4월 1일 발족,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조적 빈곤을 철폐하기 위한 반빈곤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 기초생활수급 관련 상담 및 교육
  - ▲ 불안정노동철폐와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활동
  - ▲ 공영장례 등 민중복지 쟁취 운동
  - ▲ 인권현안 연대사업
  - ▲ 1017 빈곤철폐의 날 기획사업
  - ▲ 새로운 교육실천을 위한 세미나
  - ▲ 노래파 길위에 등 소모임을 합니다.
- 함께 하고자 하는 분은 누구나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발행 : 부산반빈곤센터 | 편집위원장 : 김원석 | 편집위원 : 김민수, 메밀, 전소현, 최고운  
부산 동구 초량로53 | [cafe.daum.net/2010bac](http://cafe.daum.net/2010bac) | [bapc@daum.net](mailto:bapc@daum.net) | 051)645-0418

# 부산반빈곤센터 2025 사명·비전

기본적인 삶의 권리

서로 돋는 평등 공동체

주체적인 연대

## 생동감 넘치는 조직의 힘으로 빈곤과 차별의 벽을 넘는다

구성원이 중심이 되어 함께한다

- 회원이 200명이 된다(75%)
- 매월 1회 회원정기모임을 통해 회원 욕구를 탐색한다.
- 모든 회원들이 사명, 비전을 이해하고 실천한다.
- 역할이 분명한 운영위원 10명이 활동하고 있다(50%)
- 운영위원들이 연 4회이상 별도로 마련한 조직강화의 시간을 가진다.

서로 배우고 모두 성장한다

- 교육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월 1회 회원교육을 진행한다.  
→ 연 2회 진행중
- 전문성 있는 팀 활동으로 조직을 강화하고 강사를 배출한다.
- 1인가구, 주거빈곤 당사자 조직을 촉진하고 지원한다.

현장에서 힘을 모으고 연결한다

- 공간달풀이 부산의 인증의집이 된다.
- 연대를 도모하는 달풀콘서트를 개최한다.
- 회원들과 함께 월 1회 이상 연대 활동을 한다(100%)
- 우호적인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긴밀하게 연대한다.
- 빈곤과 차별을 강화하는 법제도 제개정 운동을 한다.

## 일정안내

사회과학세미나

책모임 '수취인: 자본주의, 마르크스가 보낸 편지'

7월 4일(금) 저녁 7시, 공간달풀

부산시민 공영장례 조문단(5기) 양성과정

7월 3일(목) 저녁 7시, 시민운동지원센터(매주 목요일, 총 4강)

신청은 [bit.ly/공영장례조문단5기](http://bit.ly/공영장례조문단5기)

회원가입

[bit.ly/bapc2017](http://bit.ly/bapc2017)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bapc0401](https://facebook.com/bapc0401)

후원계좌

부산은행 101-2043-6389-04 (부산반빈곤센터)